**말하기 전에 생각을 합시다**

21136041 안인해

**S#1. 인천역 입구, 낮**

**E. 청량하고 여행분위기의 음악. 신난 친구들의 재잘거림.**

각자 짐을 들고 인천역을 빠져나오는 민지와 친구들. 모두 밝은 표정이다. 민지 역시 기대에 부푼 얼굴로 셀카를 찍는다. 그때, 민지의 남자친구에게서 몇 통의 카톡이 온다. 카톡을 확인하는 민지.

**Insert. '민지야.' '나 사실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이제 너보다 그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아.' '미안하다. 헤어져주라.'**

**E. 음악이 멈춘다.**

민지의 표정이 굳는다. 민지는 굳은 표정으로 있다가 친구들이 부르는 소리에 굳은 표정 그대로

친구들을 따라간다.

**S#2. 바다열차 안, 낮**

여전히 굳은 표정의 민지. 친구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지만 그 가운데 민지만

멍하니 바보 같은 표정이다.

**E. 민지의 나레이션, 점점 작아지는 친구들의 조잘거림.**

민지의 비장한 얼굴을 눈까지 서서히 줌 인.

**민지Na.** 진정하자. 아무리 화가 나도 말은 골라서 해야한다고 배웠다. (비장한 목소리)

**민지Na.** 나는 오늘 이 여행 동안, 남자친구에게 전할 말을 생각하기로 했다.

**민지Na.** 여행은 아깝지만 후회는 없을 것이다. 이 때 할 말을 못하게 되면 분명 나중에

후회하고 말 것이다.

**Insert. 꽉 쥔 민지의 주먹**

**민지Na.** 이 열차가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42분, 중간에 테마파크와 박물관에서

한 번씩 내리기로 했으니 어림잡아 두 시간. 시간은 충분하다. 그 안에 화를

다스리고 모든 생각을 정리한다!

**친구** 민지야 뭐해? 내리자!

**민지** 어?(깜짝 놀라며) 어어.(주먹을 쥔 손을 피고 짐을 챙겨 헐레벌떡 따라 나간다)

정신이 돌아온 민지의 얼굴에서 바스트 숏까지 줌 아웃, 민지는 헐레벌떡 친구들을 따라 나간다.

**S#3. 테마파크, 낮**

**E. 신나 보이는 친구들의 웃음소리, 신나고 들뜨는 노랫소리**

잔뜩 신이 나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돌아가며 사진을 찍는 친구들과 멀찍이서 멀뚱히 굳은 표정

으로 서 있는 민지, 친구들 사이에서 무표정으로 우울하고 센치하게 놀이기구를 타는 민지,

벤치에 앉아 대화하는 친구들과 빈 물병을 들고 쓰레기통 앞에서 멍을 때리는 민지 등 몽타주.

**S#4. 박물관, 낮**

**E. 신나 보이는 친구들의 웃음소리, 신나고 들뜨는 노랫소리**

박물관 앞 동상이나 잔디 앞에서 다정한 포즈로 사진을 찍는 친구들과 민지. 모두 활짝 웃고 있지만 민지의 표정만 굳어 있다. 점프샷을 찍는 친구들, 모두 역동적으로 뛰지만 민지는 두 팔 다리 모두 일직선으로 뛴다. 친구들은 사진 속 민지를 확인하며 웃지만 민지만 웃지 않는다.

**Insert. 무표정 일자로 뛴 민지와 친구들의 단체사진.**

**S#5. 바다열차 안~밖, 낮**

친구들은 모두 자거나 조용히 핸드폰을 하고 있다. 민지는 멍한 표정으로 바닥을 바라본다.

열차는 한 바퀴를 돌았고, 도착했다는 안내음과 함께 친구들이 일어나 내린다. 민지는 맨

마지막으로 친구들을 뒤따라 내린다. 친구들을 따라가는 민지의 뒷모습 핸드헬드.

**민지Na.** 나는 할 수 있다. 노는 동안 충분히 생각했다.

**민지Na.** 사실 시간이 남아서 그 동안 더 생각했다. 이건 충분히 이성적 사고로

판단하여 내린 나의 결론이다.

**S#6. 바다열차 엮 밖, 낮**

줄지어 내리는 친구들, 각자의 짐을 들고 한 방향으로 향한다. 민지만이 입구에서 살짝 비켜서서

반대 방향에 멈춰 서 있다. 민지가 핸드폰을 든 순간,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온다.

**Insert. 전화가 걸려오는 핸드폰 화면**

민지는 심호흡을 한다.

**민지** (악에 받혀 목소리가 갈라질 때까지 소리를 지르며)야 이 개XXXX야!!!!!

민지의 외침에 친구들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며 끝이 난다.

**S#7. 크레딧**

**V.O 친구들의 목소리. 시끌벅적한 소리. "아~그래서 여행 내내 표정이 그랬구나?"**

**"진짜 쓰레기 아냐? 민지가 아깝다.", "그런 놈 때문에 이 좋은 여행을 망쳐? 안되겠다,**

**다음에 또 와! 김민지 필참이야!", "마시고 잊어~!", 친구들과 민지의 웃음소리, 건배 소리.**

**Insert. 남자친구에게서 걸려온 부재중전화로 가득한 핸드폰 화면, 핸드폰은 바닥에 놓여있다.**

**시놉시스**

**제목:**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합시다.

**소재:** 월미바다열차가 한 바퀴 도는 시간(42분), 중간에 도착하는 역들의 소개

**줄거리:** 신나고 즐거운 친구들과의 여행길에양다리 이별 통보를 받은 민지, 민지는 갑작스레 생긴 분노와 근심을 바다 열차를 타는 42분동안 해결해보기로 한다.

**기획의도:** 여유를 잊어버린 시대에 42분이라는 여유를 주는 월미바다열차. 생각이 많아질 때면

가만히 앉아 풍경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지만 생각이 필요한 상황이 언제나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우수에 젖는 적절한 타이밍에만 오는 것은 아니다. 최악의

타이밍에 예상치 못한 마음의 짐덩이가 생긴 주인공, 민지가 그것을 해소하는 과정을

유쾌하고 통쾌하게 풀어내며 공감과 웃음을 주고 싶었다.

**간단한 스토리보드**





